

조선후기 전통책표지 문양 능화판 12책 출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 고철자 복원 전문가 각자 장인 이창석씨의 아들인 이운천씨가 제36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운천씨는 조선후기 능화판을 출품,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하여 첫 출품이 첫 수상으로, 그것도 분당에 드는 영예를 안았다. 그가 출품한 작품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길상화문판 등 12가지 문양을 선별하여 조각한 것이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전통 책표지의 문양인 능화

능화는 전통 책표지의 문양이며, 능화판은 그 문양을 새긴 목판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책 표지에 능화판으로 바탕무늬를 찍는 것이 특징이다. 두루마리형 권서본에서 책자식으로 변한 고려후기부터 능화판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능화판은 하나의 목판화라고는 하지만 전통 능화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보기와 달리 오랜 세월과 숙달된 기능을 필요로 한다.

특히, 능화판에 사용되는 나무는 나이트가 고르고 웅이가 없으면서 칼을 잘 받는 목재여야 한다. 이번 출품작에서는 양양산 산벚나무, 양양산 돌배나무, 증충나무를 사용하였다. 이들 목재를 뿔 속에 몇 달간 묻어 진을 빼고 소금물에 삶고 몇 년간 비와 이슬을 맞히고 삭혀 뒤틀림이나 터짐이 없도록 한 다음에 썬서 사용한다. 널을 알맞게 잘라 자귀나 대패로 다듬고 화공이 그린 본을 뒤집어 붙이면 각수는 편도와 각도로 돌을새김을 하여 능화판을 완성하게 된다.

이번에 이운천씨가 출품한 작품은 조선시대에 많이 사용한 길상화문판 등으로 12가지 문양을 선별하여 치밀하고 완숙한 솜씨로 조각의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책

자를 인쇄할 때 사용되는 능화판은 마구리를 달지 않아 갈라지거나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비장이나 숨김 마구리 및 손대패로 끝 처리를 하거나 밀납으로 단면 눈메움을 했다.

가업 전승의 좋은 선례

부친인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6호 각자장 이창석씨로부터 기능을 이수하여 가족간에 전승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불력으로 팔만대장경을 조성한지 꼭 1,000년째를 맞이하는 올해, 능화판은 그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능화판은 예전에 비해 그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 이는 옛날에 책을 제작할 때에는 목판에 일일이 글자를 새겨 넣었지만, 지금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프린터를 누르면 쉽게 출력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심사위원단은 젊은 장인으로서 전통 능화판을 제작하는 전통기술을 온전히 전승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옛날 형태나 문양을 단순히 재현하지 말고 이를 현대적인 문양 디자인을 개발하고 형태를 개선해 나가는데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부전자전, 나무와 함께 한 3대

이운천씨의 부친인 이창석씨는 목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나무를 다루는 것이 친숙한 환경에서 자라났다. 남들이 마당을 어지럽히고, 집안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톱밥이며, 낱밥이 그에게는 친숙한 놀이기구였으며, 그것들이 삶으로 발전한 경우다.

이창석씨는 가정환경을 통해서 나무와 도구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유탁일(부산대 명예교수), 남권희(경북대 문헌정보학과교수), 나경준(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사)씨 등으로부터 활자에 대한 고증 지도를 받아 전통공예에서 각자장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

특히 유탁일 교수는 “당신은 타고난 손재주에 나무를 보는 안목까지 갖추었으니 활자 복원 사업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라며 자신이 수집한 1960년대 당시 경상도 각수들의 증언을 토대로 고 활자 조판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아낌없이 가르쳐 준 인연을 맺고 있다. 특히 2002년 청주고인쇄박물관이 주최한 ‘한국고활자특별전’ 당시 전국에서 수집된 목활자의 특징과 제작 기법에 대한 유탁일 교수의 지식 전수는 지금까지도 이창석씨의 작업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창석씨는 지난 1990년 고향인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지금의 ‘강원서각’을 개설했다. 바다와 산을 접하고 있는 곳으로 자연을 벗 삼아 일하기를 좋아하는 그의 작업실로서는 천혜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 80여 평 남직한 공간에 작업실과 주거공간, 전시관이 함께 마련되어 있는데 삶이 곧 생활인 탓에 작업의 흔적인 낱밥이 주거공간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제재소집 딸이었던 부인 덕분에 주거 공간을 침범하는 작업 행위는 모두 용서되었다.

각자 작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고 활자 및 활자판 복원 작업은 고향인 고성에 안착하면서 시작됐다. 94년에 고 인쇄 복원작업은 아니지만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조선역대 왕인 판각을 완성한데 이어, 96년 왕희지의 집자성교서(集自省敎書) 78면을 3년의 작업 끝에 완성해 냈다. 작품 이후 97년에는 보물 745호로 지정된 월인석보 72면을 파나는 노력 끝에 완성했다.

좁고 배고픈 일이지만 자부심 넘쳐

각자 작업은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서 돈벌이를 할 만한 수준에 이른다 하더라도 수요가 적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직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작업에 필요한 나무를 구하는 것부터 어렵지만, 도구로 쓰이는 끌이나 망치도 그 수요가 극히 적은 탓에 필요한 도구는 스스로 직접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창석, 이운

천씨는 부자시간에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빛나지는 않아도 없어서는 안 될 전통공예의 계승에 공헌 하고 있다.

■ ■ □ 미니 인터뷰 ■ ■ □ □ ■ ■ ■ ■

"과분한 수상에 진심으로 감사, 더욱 정진할 것"

Q. 이번에 수상한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은 어떤 대회인가요?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은 지난 1973년부터 시작되어, 4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전승공예 작가들의 등용문이자 전승공예의 샘플 같은 역할을 해온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올해도 총 432종 972점이 출품되어 전 승적 맥락에서 기법과 재료, 조형, 용도 등에서 자연스러운 조형적 성취를 이룬 수준작들이 다수 선보였습니다.

Q. 처음 출품임에도 문화재청장상을 받아 본상에 입상하는 영예를 안았는데, 소감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심사는 일종의 블라인드 테스트로 기술 전수자, 가족 사항 같은 것을 전혀 알리지 않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차 심사에서는 '기술원형의 올곧은 전승'과 '전 승적 맥락에서의 조형적 성취'를 기본으로 '기법, 재료, 전통성, 예술성'을 평가했습니다. 이어 현장심사와 2차 심사로 119개 작품, 309점이 입상했습니다. 제 작품은 최종결선에 오른 7개 작품 중의 하나에 뽑히는 영광을 받았습다. 분에 넘치는 과분한 영광을 받아 기쁘면서도 앞으로의 책임감에 대해 많은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Q. 수상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요?

나름대로 전통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세세한 것에까지 원형을 살리도록 신경을 쓴 것이 좋은 평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술전수자이기도 한 부친의 작품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 이와 비슷한 분위기를 낸 제 작품이 적잖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작품 활동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과분한 상을 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마음에 새기고, 작게는 가문을 더욱 빛내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을 살릴 뿐 아니라 한 단계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